

5월 31일(금)

주제
치유

성경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14)

기도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치료자이신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죄를 범하며 영과 육이 상한 저희를 크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세워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헛된 세상 향락을 버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감리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어서 속히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치유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1일(토)

주제
사랑

성경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서 4:8)

기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는 일에 인색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대접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려 하지 않는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2일(주일)

말씀과 성찬이 함께 있는
평신도주일 예배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옴

전주	반주자
* 입례송	29장(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 경배찬송	15장(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 시편교독	교독문 40번(시편 96편) 다함께
* 삼위영가	3장(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여성교회 회장
기도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와 응답

* 성경봉독	
1) 구약의 말씀 : 왕상 8:22~23, 41~43	남선교회 회장
2) 신약의 말씀 : 록 7:1~10	청장년선교회 회장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목사 또는 장로)
찬양	찬양대
설교	설교자
평신도 주일 동영상시청	다함께
합심기도	다함께
1)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2) 감리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3) 평신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봉헌찬송	50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기도	말은 이

감사의 성찬과 나눔

성찬찬송	227장(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다함께
성찬으로의 초대		목사
성찬제정사		목사
성령임재의 기원		목사
주님의 기도		다함께
분병례		목사
분급		목사와 분급위원
성찬 후 감사기도		다함께
평화의 인사		다함께
교회소식		집례자

세상으로 나아감

* 결단찬송	459장(누가 주를 따라)	다함께
* 파송말씀		다함께
* 축도		목사
후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러선다)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평신도

제35회

평신도주일

(기도문, 예배문)

기도 주간 5.27(월) ~ 6.1(토)

평신도 주일 6.2(주일)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7개 연회 산하 166개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거름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

5월 27일(월)

주제
기도

성경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12)

기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하는 자의 소원과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친히 기도의 삶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8일(화)

주제
말씀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기도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 보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뜻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였던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9일(수)

주제
전도

성경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16)

기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무지와 가난, 죄악과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었을 때, 선교사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모두 전도자의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건딜 수 없는 열정을 갖게 하옵소서. 이 나라 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기쁨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가득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30일(목)

주제
인내

성경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야고보서 5:11)

기도

인내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며 복을 내려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작은 참을성도 갖지 못하고 조금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 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면서도 작은 억울함도 참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옴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 위에 인내의 덕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끝까지 참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